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국난극복 서로 돕자”

이낙연 “지자체가 중앙정부 선도할 수 있다...좋은 제안 해달라”
이재명 “기본소득·장기공공임대주택 당의 도움 많이 필요하다”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방문한 이낙연 의원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의 이번 만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이낙연 의원까지 이 지사를 찾으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꺼안기’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와 이 의원은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청 신관 2층 접견실에서 마주했다.
이 의원의 제안으로 서로 동의하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먼저 “경기도에 오신 것도 고마운데, 도청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반겼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난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총리직에 계실 때 위낙 행정을 잘해주시고 경험도 많고... 행정능력도 뛰어나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

정운영도 보필 잘해주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지도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끌어주시고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국정에 큰 보탬이 됐다”며 “한국판 뉴딜 성공을 포함해 국난 극복에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한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이번엔 국가 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까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라서 정말로 경륜 있으시고 능력도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걸음이 좀 뒤뚱뒤뚱 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 들어가갈 테니,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인가. 그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제도 있고 가능한 부동산 세금을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경제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주택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관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저의 생각도 있고 중앙정부가 해오던 정책도 있는데 접점이 있다. 접점을 찾아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 지사는 이에 “지금처럼 ‘공포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이런 ‘공포수요’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을 사지 않고도 평생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떤 분야든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선도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충분히 존중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의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자리를 이동해 접견실에서 비공개 접견으로 전환됐다.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세 멈춰

긍정 45.6% 부정 50.1%

‘세종 이전’ 공세 효과

충청 반등 아직...서울 하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내림세를 멈췄다. 지난 20일부터 이어져온 ‘세종 이전’ 이슈가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7월4주차(27일~29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6%(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30일 밝혔다.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는데 오차 범위 내 수치로 하향 흐름이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내린 50.1%(매우 잘못함 36.3%, 잘못하는 편 1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증가한 4.3%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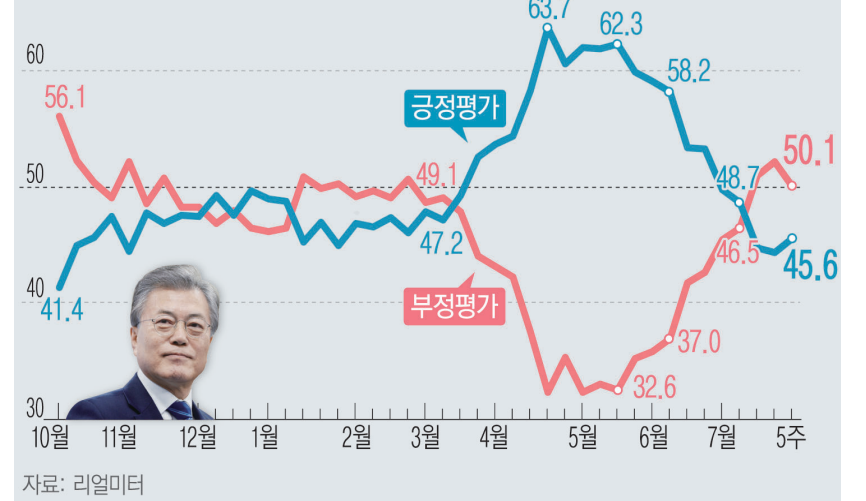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난 7월2주 차 주간집계(긍정 48.7%, 부정 46.5%) 이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인 긍정·부정 평가 차이가 3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제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등에서 당이 ‘세종 이전’ 관련 적극 공세를 하면서 남북 관계와 부동산 정책 문제에 더해 탈북자의 재입국 사건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 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주중 집계, 단위:%

7월27~29일 TBS의뢰, 1511명 응답완료, 95%신뢰수준(±2.5%p)



정에서 불거진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등의 지지율 약제 이슈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8%p↓, 41.4%→36.6%, 부정평가 58.7%), 대전·세종·충청(4.5%p↓, 41.8%→37.3%, 부정평가 56.1%) 모두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이른바 ‘세종 이전’ 논의가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만큼 곧바로 충청권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밖에 대구·경북(7.6%p↑, 33.8%→41.4%, 부정평가 57.2%), 광주·전라(5.8%p↑, 67.7%→73.5%, 부정평가 24.8%), 경기·인천(4.5%p↑, 44.9%→49.4%, 부정평가 47.7%)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2.3%p↑, 39.2%→41.5%, 부정평가 55.4%), 진보(2.8%p↑, 72.3%→75.1%, 부

정평가 22.3%)에서 올랐다. 보수(1.7%p↓, 20.1%→18.4%, 부정평가 80.7%)에서는 하락했다.

직업별로 농업·농업(8.7%p↑, 40.4%→49.1%, 부정평가 45.3%), 자영업(6.7%p↑, 39.2%→45.9%, 부정평가 51.5%), 학생(4.4%p↑, 36.7%→41.1%, 부정평가 54.2%), 노동자(3.2%p↑, 48.4%→51.6%, 부정평가 47.0%)에서 상승했고 사무직(4.1%p↓, 53.4%→49.3%, 부정평가 47.3%), 무직(3.1%p↓, 42.0%→38.9%, 부정평가 54.3%)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1%p↑, 34.7%→38.8%, 부정평가 56.6%)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을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26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1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송갑석 연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송갑석 현 위원장(서구갑)이 시장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이번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송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당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율 보내 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팀 정신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송 위원장 연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난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도 광주 발전을 고려해 중복 신청을 피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호남인의 바람인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광주시당부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8명이며 송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초선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